

저지종 공란우 채란 본격 착수 남원 ‘김부각’ 특화식품 선정

임실군, 저지종 축군 안정적 확대·수정란 자급 기반 구축 도모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가 최근 임실군 성수면에 위치한 저지종 젖소 전문 목장에서 생체난자흡입술(OPU, Ovum Pick-Up)을 활용한 저지종 공란우 난자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저지종 공란우 난자 채취는 임실군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양 기관이 체결한 '낙농산업 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지종 수정란 생산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축산연구소의 우수한 기술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저지종 축군의 안정적 확대와 수정란 자급 기반 구축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A2 유전형질을 보유한 저지종 젖소 5두를 공급받아 총 6두의 공란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될 10두를 포함하여 총 16두의 공란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OPU는 월 2회 정도 실시하며, 1회 채란으로 미리당 약 2~3개 정도의 수정란 생산이 가능하여 능가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지종 젖소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가 최근 임실군 성수면에 위치한 저지종 젖소 전문 목장에서 생체난자흡입술(OPU, Ovum Pick-Up)을 활용한 저지종 공란우 난자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육성 및 보급 기반을 탄탄히 다져, A2 저지종 원유를 활용한 고품질 유제품 생산과 임실N치즈 명품화에 기여할 것일 방침이다.

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 체내 소화 및 흡수가 잘되고 우유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군은 특히 저지종 젖소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우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이 높아 영국 황실에도 공급됐다고 하는 저지종 젖소는 일반 홀스타인 젖소보다 우유 내 지방 함량이 15~20%, 칼슘 함량은 15~18%가 많아 우유로 만든 숙성치즈와 요거트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농생명산업지구 발전을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과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지역별 특화식품 홍보·지원사업 대상 선정

남원시가 지역 대표 식품인 김부각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하는 2025년 지역별 특화식품 홍보·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식약청이 지역별 특화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안군 양파즙, 제주시 오메기떡과 함께 남원시 김부각이 특화식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원사업의 일환인 식품안전 및 HACCP 관리 교육을 9월 27일 남원시 관내 김부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연내 1회 이상 찾아가는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광주식약청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주된 내용은 HACCP 인증·연장심사 이해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사항 관련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특화식품 선정과 교육 및 지원은 김부각 제조시설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에서도 안전한 생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 기술지원을 광주식약청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주된 내용은 HACCP 인증·연장심사 이해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사항 관련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특화식품 선정과 교육 및 지원은 김부각 제조시설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에서도 안전한 생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치매환자 돌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치매환자 돌봄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7일 오전 9시,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전문 교수를 초빙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남원시 특화사업인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수혜사업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돌봄지원사가 17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인지교육, 복약 확인, 안전 점검,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200명의 생활지원사가 3천여 명의 어르신을 살피며, 정기 방문과 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예방·치료 영역을 넘어, 전국 최초로 치매환자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돌봄지원사가 17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인지교육, 복약 확인, 안전 점검,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200명의 생활지원사가 3천여 명의 어르신을 살피며, 정기 방문과 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64회 순창군 통계연보 발간

2023년 12월 31일 기준 16개 분야 150여개 항목 수록

순창군이 군정 전반의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한 제64회 순창군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경제 △교육 △복지 △농업 △환경 등 16개 분야, 150여개 항목을 수록했다.

자료는 각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했으며, 최근 5년간의 변

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지역의 사회·경제적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발간된 통계연보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우선 배포되며, 군민 누구나 순창군 홈페이지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순창군은 매년 통계연보를 통해 지역의 구조적 변화와 현황을 수치로 확



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는 군정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행정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조림지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이 산림자원의 건강한 성장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총사업비 11억4,800만원을 투입, 671ha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차 사업(343ha)을 마쳤으며, 8월부터 2차 사업(328ha)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 전역의 조림 후 5년 이내의 조림지 가운데 수목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작업은 풀베기, 덩굴 제거, 가지치기 등이다.

군은 이를 통해 조림목의 생존율을 높이고 숲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

충과 산림 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보호구 착용 의무 및 예초기·톱 등 장비 안전 사용법, 폭염·낙상·전도 등 작업 중 사고 예방 요령과 발·뱀 등 산림 내 위험 요소 대응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춘향농원, 어르신 마음치유 '맞손'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27일 오전 10시, 춘향농원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어르신 대상 맞춤형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관에서 인솔해 춘향농원으로 이동해 총 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총 8회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압화를 활용한 겨울·이름표 만들기 △텃밭 채소 가꾸기 △생대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남원=김기두 기자



듣기 등 다양한 농업 기반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권해정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함께 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치매극복의 날 맞아 '걷기 챌린지' 운영

순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9월 21일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군민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치매예방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하루 6,000보 총 21일간 126,000보라는 목표 달성에 도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 습관을 형성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워크온(WalkOn)' 앱을 설치한 뒤, 순창군 공식 커뮤니티인 '행복 순창! 걷기 좋은 순창!'에 가입해 챌린지에 등록하면 된다. 목표를 완주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걷기는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생활습관 가운데 하나"라며 "군민 모두가 함께 걷기에 동참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순창소방서,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홍보 강화

순창소방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무더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순창소방서는 폭염 대응 요령 홍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염의 위험성과 주요 증상,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외출 자제 △그늘에서의 휴식 등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강조했으며, 열사병과 열탈진의 초기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평소 폭염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건강을 지키고, 주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안전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